

몽골불교 현장을 가다

특 집

민주화 바람타고 중흥불사 한창

구 소련이 무너지면서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몽골은 민족 속에 남아있던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가장 몽골적인 것이 불교다'는 기치 아래 '몽골식 우리것 찾기'에 나선 것이다. 현대 전세계를 호령하던 정가스칸 후예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 21세기를 앞두고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몽골불교의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 몽골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생활을 불교의식에 따른다. 불교행사에 참석한 몽골스님들과 불자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거리에 서 있다 보면 국내의 작은 도시를 찾은 착각에 빠진다. 주변 미관을 고려치 않고 들성들성 세워져 있는 사회주의식 건물을 빼고 보면 전경후의 한국땅이다.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는 같은 인종이고 다만 언어만 다를 뿐이다.

몽골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전통의상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의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열구나 불교달력 호신불을 찾을 수 있다. 또 거리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앞유리에는 어김없이 작은 만다라가 매달려 있다. 몽골인 모두가 불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증표다.

명실상부한 몽골불교의 센터다. 특히 간단사 승가대는 유일한 인재양성기관으로 그동안 2백여명의 승려를 배출했다. 이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공산주의자들이 파괴한 사찰을 다시 세우고 후학을 가르치고 있어 몽골 불교의 앞날을 밝게한다.

몽골의 불교는 티베트에서 형성된 라마교다. 살아있는 부처 라마가 종교와 정치를 총괄하는 승·정일치다. 아직도 티베트 라마교의 자취가处处에 남아있다. 사찰양식이나 만다라가 그렇다. 또한 세우고 후학을 가르치고 있어 몽골 불교의 앞날을 밝게한다.

특히 이곳에 보관된 불상과 만다라, 경전 등은 몽골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몽골은 최근 민주화의 물결 위에 떠 있다. 급격한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은 젊은층 가치관을 흔들며 놓기도 한다. 최근에 또다른 변화는 한국 기독교의

간단사 대규모 관음상 조성

몽골은 요즈음 국민적 축제를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8월25일 달라이라마가 몽골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은 국민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기 위해 25일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울란바토르의 서북쪽 언덕에 자리한 몽골에서 가장 큰 사원인 간단사도 세계 최대의 관음상을 조성하는 등 달라이라마를 맞이위한 단장모습이 여수선하다.

4년새 사찰 132곳 건립... 자동차마다 만다라 탕화 한국불교 공식교류 없어... 기독교 선교사·병원 상륙

간단사는 전형적인 몽골사원 양식을 갖추고 있다. 대웅전, 관음전을 비롯한 10여종의 전각이 짜임새 있게 자리해 있다. 간단사에는 도서관, 박물관, 장경각과 승가대학, 총무원이 자리해 있어

몽골이 전세계를 지배하던 원나라 때 한 집에 장군 한 명이 나왔다. 그후 16세기는 티베트에서 라마불교가 전래되었다. 이후 몽골의 집에는 장군대신 승려가 한명씩 나왔다.

이렇게 몽골의 불교는 3백여년동안 경제, 문화, 정치를 망라해 생활속에 젖어왔다.

이다.

1920년대 초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몽골불교는 처참하게 말살되었다. 그러나 50여년간 지속된 공산주의 정권에도 민족속에 남아있는 불심은 없애지 못했다. 집집마다 모셔놓았던 불상과 탕화는 빼앗겼으나 향상 기도하는 마음은 손대 수 없었던 것이다.

선교활동이다. 얼마전 기독교 선교사로 구성된 한국평화봉사단 30여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몽골 각지로 흩어져 2년 동안 봉사활동을 앞세워 선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개신교 의료진의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7월 연세병원이 울란바토르에 병원을 세웠다. 몽골에서 가장 최신시 설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 울란바토르 남쪽에 자리한 복도칸 박물관. 몽골의 마지막 승왕 집현림바 8대가 주석하던 궁전跡 사원으로 옛 몽골불교의 영화를 엿볼 수 있다.

몽골인은 생활이 곧 불교

이러한 심심은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공산정권이 몰려나간 4년이 지난 지금 몽골에는 울란바토르에 15개와 전국 1백32개의 사원이 다시 세워졌다. 승려도 3천명을 넘고 있어 몽골불교의 지력을 보여준다.

울란바토르에는 5개의 박물관이 있다. 그 가운데 2개는 사찰을 개조해 만든 불교박물관이다. 불교가 모든 것을 관장했기에 사찰이 곧 박물관으로 바뀐 것이다. 이 가운데 울란바토르 남쪽에 자리한 복도칸박물관은 몽골의 마지막 승왕이 거처했던 궁궐跡 사원으로 웅성했던 불교의 옛 영화를 보여주고 있

자신도 불자라고 소개하던 통역 바야르씨(24)는 "포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몽골인은 생활 자체가 곧 불교이기 때문에 굳이 불교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몽골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개신교의 집요한 선교활동은 궁핍했던 시절 외래종교가 활개치던 한반도를 연상케 한다.

가난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온 몽골인. 50년 억압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불심이 계속되는 몽골은 영원히 부처님 땅으로 존재할 것이다.



몽골 불교 최고지도자 초잠츠스님

“공산당 탄압때도 佛心은 여전”

—만나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몽골 불교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몽골불교의 역사는 3백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에서 불법이 전래되었으나 위대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몽골의 풍습과 생활에 따라 점성술, 의술, 철학 등이 크게 발달해 쉽게 불법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몽골적인 것이 불교라 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 생일, 병들거나 죽었을 때 등 모든 생활이 불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승·정일치로 잡은 람바 8대가 승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불교가 말살되었다고 하는데 암울한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요.

▲1936년 스탈린이 불교말살을 감자기 단행해, 린포체를 포함한 대승려 1만7천명이 학살되고 전국적으로 7백여개의 사찰이 폐허가 됐습니다. 당시 외형상으로는 몽골에 불교는 하나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고 사찰건립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전쟁, 인권, 환경 등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즈음 사람들은 자동차, 컴퓨터 등의 기계에 의존해 몸을 움직이지 않고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생활이 편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정신이 중요하건만 행복을 밖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정신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움이 소멸되지요.

—한국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민족 분단국입니다. 통일을 위해 스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통일문제 또한 불교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티베트를 볼 때 독립된 티베트와 중국자치주 티베트가 있으나 모두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싸우지 않고 융화하려는 부처님 가르침에는 불은 녹듯이 사그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몽골은 민주화와 함께 외래종교의 선교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90년대 들어서 한국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몽골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몽골인들이 다른 종교를 보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진실하다면 믿으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선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종교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발전하면 결국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으로 나뉘어 경쟁을 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행복하고자 생긴 것인데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종교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불자들에게 인사말씀...

▲한국 불교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친하게 살아갑시다. 또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엽〉

“한국 분단 불법으로 허물 수 있어”

몽골불교 인재양성·사찰건립 시급

생전 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 광, 예수재의 재단설치, 의식절차,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간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
2. 삶의 해변에서 모든 조각돌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곳에서 선물을 가지고 갔으니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생전 예수재의 공덕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법보시 가격/1권당 1,000원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의 공덕

생전 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 광, 예수재의 재단설치, 의식절차,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간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생전 예수재 용품 보급안내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39년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재 용품을 2가지 (1,000원, 2,000원)로 보급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즉시 납품하여 드립니다.

예수재 용품 내용물 (1,000원)		예수재 용품 내용물 (2,000원)	
지정 1권(1인) 60권	수생경 1권	지정 1권(1인) 60권	수생경 1권
전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지정 2권(2인) 120권	수생경 1권
수구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전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수구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소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공경경 1장	수생경 1권	소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민만 3인권	수생경 1권	공경경 1장	수생경 1권
		민만 3인권	수생경 1권

생전 예수재 용품 보급안내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39년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재 용품을 2가지 (1,000원, 2,000원)로 보급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즉시 납품하여 드립니다.

예수재 용품 내용물 (1,000원)		예수재 용품 내용물 (2,000원)	
지정 1권(1인) 60권	수생경 1권	지정 1권(1인) 60권	수생경 1권
전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지정 2권(2인) 120권	수생경 1권
수구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전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수구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소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공경경 1장	수생경 1권	소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민만 3인권	수생경 1권	공경경 1장	수생경 1권
		민만 3인권	수생경 1권

성마출판 TEL 778-6826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
2. 삶의 해변에서 모든 조각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84년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권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용량,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곳에서 선물을 가지고 갔으니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불교에 그대게 마음을 닦았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기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기 붓다가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 라즈나리 강의 1권 1,500원
신곡 1권 2권 1,500원